

④ 新羅土器

그 壺形土器 같은 것은 어느 것이냐는 質問에 對하여 發見者 두 사람은 서슴치 않고 ②의 土器片을 指摘하였다. 寫眞의 土器는 七—八年前 이 部落 앞을 지나다가 그곳 農家에서 小便器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出處를 물었더니 뒷 산에서 나왔다고 하므로 寫眞을 찍어 두었던 것인데 높이는 七〇cm 가량의 靑灰色 無文土器였다고 記憶하고 있다.

지금 이 部落 뒷 산에서 採集되는 土器破片中에도 같은 質의 大形土器片이 섞여 있는 것으로 봐서 어쩌면 이 一帶의 埋葬地에는 土壙墓以外에 甕棺墓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附記하여 後日의 調査를 기다리고자 한다.

以上の 遺物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洪水에 依한 偶然한 發見이기는 하나 그 出土地點이 確實하고 또 多幸히도 그 現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原狀을 明確히 把握하지는 못하였으나 大體로 同一한 土壙墓에 副葬되었던 一括遺物임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나온 銅鏡은 그 自體에는 紀年銘이 없으나 그 것이 西紀 一世紀頃에 盛行한 「方格規矩四神鏡」으로 其中에서도 標式이 될 만한 作品임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樣式의 銅鏡이 우리나라에서는 樂浪의 故地以外的 地域에서 發見되었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그것이 精美한 靑銅製品이나 鐵製武器 土器等과 같이 土壙墓에서 出土하였다는 점은 더욱 重要な 意義를 內包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一括遺物의 앞으로 우리나라 古代墓制의 問題나 大陸文物의 交流關係 또는 이 地方 初期金屬文化의 樣相을 究明하는 데에도 重要な 資料가 될 것을 期待한다.

이 一括遺物은 出土以後 分散되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轉轉하는 過程에서 엉뚱하게 銅劍二柄이 여기에 使乘附加되는 混線狀態를 비저냈다. 筆者는 遺物의 行方을 追求하는 同時에 出土現場을 數次調査하여 그 銅劍이 本一括遺物과 關係없는 것이고 中間 商人들이 任意로 附加한 것임을 確認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 때문에 意外的 時間과 勞

力을 消費하게 되어 이제 겨우 이 一括遺物을 完全 復原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기뻐하는 바이다.

- 註一、朝鮮古文化綜鑑 第一輯 P、八七
- 二、國立博物館 靑銅遺物圖錄 P、一四
- 三、南朝鮮의 漢代遺蹟 P、九一 圖版四五
- 四、酒村面 後浦里 砂德部落. 東西로 五〇〇M 거리에 있는 두 丘陵에는 農所 里貝塚과 柳下里貝塚이 있다.
- 五、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P、七五
- 秋山進午 中國東北地方初期金屬文化之樣相 考古學雜誌五三卷四號
- 六、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P、七七
- 七、關野貞 樂浪郡時代の 遺蹟 P、三三〇
- 梅原末治 鑑鏡研究 P、一五七、第一圖
- 朝鮮古文化綜鑑 第三卷 P、八、圖版五六

新羅鳥形土器小見

金 元 龍

新羅土器中에 보이는 動物形土器가 特別한 뜻을 가진 儀器인 것이라 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해서는 이미 小文을 發表한 바 있지만 ① 그들은 모두 洛東江下 流流域인 農業地帶伽耶地方에서 나왔다. 그런 점에서 動物土器는 伽耶의 特色인 文化的 所産이고 農耕이나 農耕社會와 무는 關連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動物形土器中에서 가장 數가 많은 것이 鳥形이며 現在 알려져 있는 것만도 最少 一〇개는 넘는다. 이들 鳥形土器가 表示하는 새는 모두 부리가 넓으며 오리 아니면 鵝鳥라고 생각되는데 日本小倉蒐集品인 一例

는 머리를 뒤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오리로 보나 오리며 나는 새들은
洛東江변에서 많이 길렀거나棲息하던 오리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二

오리 또는 鵝鳥라고 생각되는 물새는 細形銅劍中の 소위 觸角式劍柄
에도 使用되고 있으며 ② 一般의 江邊에 살고 있던 古人들은 들새
보다는 물새를 信仰이나 美術의 對象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江邊 및 地域에서 農事를 하던 初期農耕人들에게는 더욱 물새
는 自己의 生活에 가까운 存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꼭 물새는 아니라도 새에 대한 信仰이라 할까 特殊感情의 發展
은 아메리칸인디안의 羽帽로부터 現代의 募金에 쓰이는 사랑의 깃에 이
르기까지 汎世界的인 古今을 通한 現象이며 지금 그것을 일일이 캐고
들어갈 力量이나 時間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를 中心으로 한
極東地域의 새崇拜에 관해서는 李龍範교수의 精密한 研究가 있
다 ③.

古代韓族이 소위 鶻대를 세워서 事鬼神하였다거나 특히 弁辰에서는
큰 鳥羽를 死者와 함께 묻히던 그것은 死者가 하늘로 날라 올라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魏志東夷傳에 적혀 있는 바이지만 나무로 된 鳥形을 使
用한 鶻대 ④는 아직도 南韓에서 部落守護神으로 繼承되고 있는 것은 周
知의 事實이다.

한편 高句麗에 관해서는 李교수의 研究대로 周書(其有官品者 又插二
鳥羽於其上)、北史(土人加插二鳥羽) 등의 中國史書의 記錄을 빌리지 않
더라도 古墳壁畫에 그려있어 分明한데 雙楹塚의 경우는 틀림없이 二鳥
羽지만 有名한 舞踊塚의 狩獵에서는 여러개의 꾸부리진 털이 닭의 꼬리
가 分明하다. 事實 高句麗가 닭을 崇拜하고 帽子에 그 털을 장식했다는
것은 南海寄歸內法傳이나 三國遺事卷四의 歸竺諸師條에 실려있듯이 緋
리 印度에까지 알려지고 있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動物로서 鷄鳴은
暗黑恐怖、邪神 등으로부터의 解放을 象徵하는 것이며 實地로 舞踊塚天
井部에는 닭이 그려져 있고 古人人들의 崇拜는 當然한 理由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百濟에서는 亦是 周書나 北史의 百濟傳에 「若朝拜祭祀 其冠兩廂
加超日式事則不」(北史卷九四)이라고 되어 있어 朝拜·祭祀 등 平時의 特殊한
行事時에 鳥羽를 冠에 꽂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百濟의 경우는 實物이
나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그것이 무슨 새인지를 推測할 수 없다.
新羅의 경우는 記錄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有名한 金冠塚金冠의 內冠
이나 達城地方古墳出土의 金銅冠內冠 따위의 前面에 붙은 두개의 雉모양
장식은 分明히 鳥羽이고 瑞鳳塚出土의 金冠은 內冠은 없으나 外冠頂部에
조그만 鳥形을 오려서 얹어 놓고 있다. 그런데 더구나 興味있는 것은 義
城塔里古墳의 예이며 여기서 金에 세 개의 立飾을 세웠는데 各立飾
은 兩翼을 가세로 가늘게 오리고 그것을 비틀어서 羽毛의 부드러운 質感
을 내려고 했고 上端은 日字를 옆으로 한 것 같은 形態로 透作해서 첫
눈으로 그것이 孔雀의 깃을 나타내려고 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⑤.

三

以上과 같이 古代韓國인이 새에 대해서 특수한 觀念을 가지고 鳥羽를
冠飾으로 썼을뿐 아니라 鶻대를 세우고 弁辰에서는 副葬品으로까지 쓰
고 있는 것으로 볼 때 洛東江流域의 伽耶 卽 弁辰地方의 古墳에서 發見
되는 鳥形土器들은 그저 單純한 明器가 아니라 葬送과 不可分한 地
方特有의 儀器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고, 그럴 경우 얼핏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鳥羽의 代用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아니 鳥羽의 代用이 아니라
元來 鳥羽를 써오다가 富裕層이나 上流層에서 考察해낸 一種의 奢侈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래 너무 想像으로만 뛰는 것 같지만 一般庶民層에
서는 實際 새털(아마 오리나 鵝鳥)을 계속 使用했으나 一部 上流層에서는
그런 鳥形土器를 만들게 하여 靈魂飛翔用이라기보다는 一種의 神器 또는
神像으로서 使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와 關連해서 亦是 伽
耶地方에서 出土되는 馬形土器도 古代韓族이 牛馬를 葬送 때 犧牲으로
썼다는 魏志의 記事로 보아 그러한 代用犧牲으로 使用되었을 可能性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言及해 되어야 할 것은 馬、鳥는 勿論하고 이러한
動物形土器는 반드시 内部가 中空이고 등과 꼬리部分에 각각 구멍이 크

개 풀려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中空動物形器로서 등에 瓶口같은 開口이 있는 것은 實은 古代近東이나 유럽에서도 흔히 보는 바이며(註1參照) 거기서도 如斯한 動物形器는 祭器 또는 儀器로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그것들은 그 出發點에서 外形과 함께 容器라는 機能的 面도 賦與되었던 것이며 이 경우 그것은 술이나 聖水마위의 祭祀特殊液體를 담는다는 그 元來의 機能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勿論 伽耶地方의 이러한 動物形 土器가 實地 儀式에서 容器나 注水器로 使用되었으리라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東京大學이 所藏하는 南韓出土의 一器는 高杯를 후려서 耳杯形으로 만들고 一端에는 조그만 鳥形을 달고 他端는 注口로 하고 있어 그러한 鳥形土器가 비록 象徵적이었는지는 모르나 一種의 聖水容 器的인 性格도 具有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다.

四

以上別 根據도 없이 雜談같은 臆說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나로서는 伽耶地方 特有的 鳥形土器는 이 地方에서만 있던 「以大鳥羽送死」라는 風習과 關連시켜 葬送用鳥羽의 代用 또는 一種의 奢侈性鳥羽라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에 대한 崇尚은 全國적이었는데 鳥形土器가 何必 伽耶地方에만 集中되고 또 왜 물새(오리 아니면 鵝鳥)를 썼는가 하는 理由는 알 수 없으나 伽耶가 實質적으로 洛東江下流의 델타地域을 利用한 先進農耕地帶니만큼 生活環境에서 由來하는 自然現象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伽耶人들은 물새와 實地生活面에서 가장 緊密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며 거기서 물새에 대한 特殊觀念이 發展한 것 같다. 鳥形土器는 그런 意味에서 거꾸로 古代伽耶人들의 實生活의 一面(오리의 狩獵 또는 飼養)을 보여주는 經濟的資料라고도 할수 있을지 모른다.

註一、拙稿「三國時代動物形土器試考」美術資料六號(一九六一、一二)

二、拙稿「鳥形안테나式細形銅劍의 問題」白山學報 第八號(一九七〇、六)

三、李龍範「高句麗人의 鳥羽插冠에 對하여」東國史學 第四輯(一九五六)

四、餘談이지만 矢대는 鶯대(鳥樛)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

五、金載元 尹武炳 義城塔里古墳(一九六一) 圖版二

傳山清出土紅陶와 그 伴出石器

金 英 夏

一、紅 陶(圖 1、2)

이 紅陶는 慶南山清地方에서 出土되었다 한다. 正確한 出土地와 關係 知見을 確認하고자 努力했으나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物件을 가져온 사람의 傳聞에 依하면 慶南山清地方에서 砂質 土中에 묻혀있던 箱式石棺으로 推定되는 것 속에서 石器와 더불어 나왔 다 한다.

이 紅陶는 良質의 粘土를 使用한 所謂細泥紅陶로서 器壁이 얇고 따라서 가볍다. 表面과 內面 侈口의 밑까지는 紅色으로 잘 磨研되어 매끈하다. 등근게 鼓張한 胴部와 頸部와의 接着線이 認定되고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급하게 좁아져 外反한 口緣과 당는 部位는 좁은 感覺을 준다. 丹塗가 벗어진 곳이 약간 있기는 하나 거의 完整한 遺品이다. 벗어진 곳의 胎土는 黃褐色을 보인다. 이 種類의 土器로서는 大形에 屬하는 데 黃石里 支石墓① 出土의 大形 紅陶와 比하면 高와 口徑의 크기는 거의 같으나 胴徑은 약간 더 크다. 그래서 목이 더 좁게 보이고 器形全體가 광과 질한 느낌을 주고 있다. 高一五、胴徑一六七、口徑一〇、壁厚〇·四—〇·五 cm

紅陶는 文樣이 그려져 있지 않은 採陶이다. 卷上法으로 造形하는 手製의 土器로서 器面을 아름답게 磨研한 붉게 구운 것이다. 紅色은 酸化鐵을 마르고 酸化炎으로 구운 效果이다. 紅陶의 起源은 彩陶와 더불어 오래인 것 같고 整形을 爲하여 두드린 자국이 있는 粗紅陶는 歷史時代에 이르기까지 製作이 繼續되고 있으므로 紅陶는 先史土器의 큰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熱河地方의 紅陶②는 出土狀으로 미루어 中東地方의 春秋戰國時代까지 時代가 내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遺物 가운데는